

# 무단결석과 애착유형이 중학생 학교폭력 가해경험에 미치는 영향: 신체적 폭력 중심으로

김희영<sup>1</sup> · 조미경<sup>2</sup>

남서울대학교 아동복지학과<sup>1</sup>, 을지대학교 간호대학<sup>2</sup>

## The Effects of School Truancy and Attachment Types on School Bullying of Middle School Students: Focusing on Physical Bullying

Hee-Young Kim<sup>1</sup> · Mi-Kyoung Cho<sup>2</sup>

<sup>1</sup>Department of Child Welfare, Namseoul University, <sup>2</sup>College of Nursing, Eulji University

### ABSTRACT

**Purpose:** This study examined the levels of and the associations between middle school students' attachments to parents, peers, and teachers, truancy, and school bullying. **Methods:** Data on middle school student were obtained from the Korea National Children and Youth Survey 2010 ( $N=2,968$ ). The independent t-test and Kruskal-Wallis test were conducted to examine the differences in truancy and school bullying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students. Multiple stepwise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to identify the factors influencing school bullying. **Results:** The magnitude of the correlation between truancy and bullying was  $r=.34$  ( $p<.001$ ). Two types of attachment(to parents and to teachers) were associated with school bullying, with the magnitude of  $r=-.06$  ( $p=.003$ ) and  $r=-.09$  ( $p<.001$ ), respectively. Truancy and all three types of attachment (to parents, peers, and teachers) predicted school bullying significantly ( $F=27.84$ ,  $p<.001$ ). **Conclusion:** In this study, truancy had more influence on bullying behavior than attachments to parents, teachers and peers among middle school students. These results suggest there is need to develop and provide programs to prevent or early intervene in truancy, an important predictor of school bullying, to reduce school bullying among middle school students.

**Key Words:** bullying, attachment, truancy, middle school students

##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학교폭력은 국내뿐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관심을 갖고 지속적인 연구를 하고 있는 청소년문제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5년 중반 이후 학교폭력으로 인한 학생들의 잇따른 죽음과 폭력으로 인한 살인 등이 알려지면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었고 현재 학교폭력은 정부가 선정한 사회의 4대 악으로 지

목되어 더 이상 학생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이해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대처하려는 노력을 해오고 있다. 2004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시행령이 발표되었으나 여전히 학교폭력의 심각성은 지속되고 있다. 청소년폭력예방재단(2012)에 의하면 학교폭력 가해율은 2008년도에 8.5%로 감소하였다가 2009년 이후 12.4%로 다시 증가하여 2011년 9.4%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교폭력 피해율도 2009년에 9.4%로 감소하였다가 2011년 다시 18.3%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폭력예방재단에서 조사한

Corresponding author: Mi-Kyoung Cho

College of Nursing, Eulji University, 553 Sanseong-daero, Sujeong-gu, Seongnam 461-713, Korea.  
Tel: +82-31-740-7415, Fax: +82-31-740-7415, E-mail: ciamkcho@eulji.ac.kr

투고일: 2014년 7월 4일 / 심사완료일: 2014년 8월 20일 / 게재확정일: 2014년 8월 21일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2013년 자료에 의하면 피해학생 10명 중 4.5명이 학교폭력 피해경험으로 인한 자살 충동을 느낀다고 보고했으며, 가해자가 2인 이상인 집단폭행 형태의 학교폭력이 2010년 66.2%에서 2011년 67.9%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무엇보다 학교폭력의 심각성이 질적으로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중학생에서의 학교폭력 심의건수가 전체 발생 건수의 69%로 초등학교나 고등학교보다도 심각한 수준임을 나타내고 있다(The Ministry of Education, 2012).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다양한 정의를 내리고 있어서 한 가지로 정의할 수 없으나, 학교폭력 연구의 대표학자인 Olweus (2003)는 힘의 불균형 상태에서 어느 한 개인이나 집단이 희생자 한명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혹은 반복적으로 조롱, 괴롭힘, 별명 부르기, 때리기, 밀기 등과 같은 부정적 행위로 학교폭력을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13년 7월 30일 개정)에 의하면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한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정의를 살펴볼 때 학교폭력의 유형은 정신적인 피해를 주는 정신적 폭력과 신체적 가해를 주는 신체적 폭력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 동안 학교폭력을 유발하는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밝히고자 하는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져왔다(Hwang, 2010; Lee, 2000). 특히, 가정과 학교환경의 보호요인으로 알려진 부모애착, 교사애착, 또래애착은 청소년들의 학교적응에 중요한 관계가 있다고 알려졌다(Choi & Cho, 2013; Kim, 2005). 부모애착의 경우 부모의 공격적인 양육태도, 부모와의 갈등수준과 자녀간의 개방적인 의사소통이 높을수록 학교폭력 가해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으며(Shin, 2006), 학생이 인지하는 교사의 지지와 교사에 대한 친밀감이 높을수록 학교폭력이나 비행수준이 낮다고 보고하였다(Do, 2007). 또래애착의 경우 애착의 대상인 친구의 유형에 따라 학교폭력에 정적인 또는 부정적인 관계를 나타내는데, 즉 비행 청소년이거나 공격적인 친구를 애착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경우 친구의 비행행동을 모방하여 반사회적 행동이나 학교폭력의 경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Kim, 2007).

학교 무단결석은 청소년 비행을 예측할 수 있는 조기경고행동으로 알려져 왔다(Cho & Kim, 2013). Loeber와 Farrington (1999)이 제시하는 비행 모델에서 무단결석은 청소년 범죄와 성인 범죄의 발달진행경로의 중요한 디딤돌 역할을

한다고 제시하였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한 도시의 경우, 낮 시간 범 죄율이 학교밖에 있는 학생들에 의해서 높아지고 있다고 보고했으며, 실제적으로 3주 동안 무단결석 아동들을 단속한 결과 낮 시간 범 죄율이 60% 감소했다고 보고했다(Bowen & Chapman, 1996). 미국 법무성의 보고에 따르면, 감옥에 수감 중인 수감자의 80%가 학교시절 무단결석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보고함으로 무단결석이 일생에 미치는 영향력을 강조했다(Kagan & Gall, 1998). 영국 청소년 대상의 연구에서도 비슷한 보고를 하고 있다. 영국 청소년 범죄자의 65%가 퇴학생이나 상습적 무단결석 학생들인 것들로 보고되고 있으며, 학생이 학교에 소속되어 있는 것만으로도, 범죄예방효과가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Audit Commission, 1999; Department for Education and Skills, 2004). 이렇게 학교 무단결석은 청소년의 문제행동으로 알려져 있는 다양한 비행행동들, 약물사용 및 남용, 자살, 학교중도탈락 등과의 밀접한 연계성이 보고되고 있다(Chang & Romero, 2008; Henry & Huizinga, 2007). 또한 청소년 폭력과 관련하여서도 학교폭력 피해자의 경우는 폭력의 회피를 위한 방법으로 가해자의 경우는 학교 부적응의 현상으로 모두가 학교 무단결석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이 보고되고 있다(Sampson, 2004).

이러한 학교 무단결석의 청소년비행 행동들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학교폭력 가해행동에 대한 무단결석의 영향력을 살펴본 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특히, 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12.2.6)에 의하면 최근 3년 동안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총 심의건수 중 중학생이 전체의 69%로 가장 높았으며, 전체 학교폭력 발생 비율에 있어서도 초등학교나 고등학교보다도 높으며 폭력의 심각성 면에서도 관심이 요구되는 대상이다. 따라서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들을 볼 때 중학생의 신체적 폭력을 이해하기 위하여 가정과 학교환경의 주요 변인인 부모, 교사, 또래애착의 영향력 뿐만 아니라 학교 무단결석의 영향력을 파악하는 것이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해 보다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중학생들의 애착유형, 학교 무단결석, 학교폭력과의 관련성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 애착유형, 학교 무단결석, 학교폭력의 정도를 파악한다.

-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교폭력의 차이를 파악한다.
- 애착유형, 학교 무단결석이 학교폭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 연구방법

###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2010년 한국 아동·청소년 통합조사」로 실시한 과제 중 우리나라 중·고교생과 학부모의 가족의식·가정생활의 실태를 파악하여 청소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된 2010년 통합조사의 기초분석데이터를 이용하여 중학생들의 애착유형, 학교 무단결석, 학교폭력과의 관련성을 파악하고자 하는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 2. 연구대상

연구대상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12개 시/도 지역(서울시, 인천시, 대전시, 광주시, 대구시, 울산시, 부산시,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강원도, 경상도)에 재학 중인 중학생으로 조사모집단은 2009년 교육통계연보(Ministry of Education, 2009)에 수록된 전국 중학생 현황을 기초로 확률표집방법(학교별 학생수를 반영한 규모비례확률표집법인 층화다단계집락표집을 적용)으로 2,930명이 목표 표본이었으나, 학급을 일차추출 단위로 학급당 평균 학생수가 35명임을 가정하여 97개의 목표 학급수를 산정하였고 추출된 학급의 전체 학생을 조사한다는 원칙하에 예상되는 최종 표본크기는 3,395명이었다(표본오차 95% 신뢰수준 하에서  $\pm 1.72\%P$ ). 무응답 항목이 많거나, 허위로 파악된 조사원의 조사표는 폐기함으로써 465개의 조사표가 폐기되어 2,968명의 조사표만 최종분석에 사용되었고, 탈락률은 13.7%였다.

### 3. 연구도구

#### 1) 학교폭력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2014). 본 도구는 비행 관련 선행연구(Kim

& An, 2008; Shin, 2005; Yang & Park, 2009) 및 한국청소년패널조사(KYPS)의 조사항목들을 참고하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2010년 우리나라 중·고교생과 학부모의 가족의식·가정생활의 실태를 통합조사 하기 위해 개발한 비행경험의 13개 문항 중 학교폭력의 정의에 해당하는 타인 구타/폭행을 묻는 1개 문항을 이용하여 측정된 점수이다(Lee, Oh, & Kim, 2010). 문항에 대해 지난 1년간 자신의 경험정도를 '전혀 없다' 1점에서 '10회 이상 있다'의 6점까지의 6단계의 Likert 척도로 응답하게 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폭력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 2) 무단결석

본 연구에서는 비행 관련 선행연구인(Kim & An, 2008; Shin, 2005; Yang & Park, 2009) 및 한국청소년패널조사(KYPS)의 조사항목들을 참고하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2010년 우리나라 중·고교생과 학부모의 가족의식·가정생활의 실태를 통합조사 하기 위해 개발한 비행경험의 13개 문항 중 무단조퇴 및 무단결석 경험을 묻는 1개 문항을 이용하여 측정된 점수이다(Lee, Oh, & Kim, 2010). 문항에 대해 지난 1년간 자신의 경험정도를 '전혀 없다' 1점에서 '10회 이상 있다'의 6점까지의 6단계의 Likert 척도로 응답하게 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 무단결석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 3) 부모애착

부모와 자녀세대간의 정서적·심리적 친밀감과 애착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Mangen, Bengston과 Landry (1988)의 척도를 수정·보완한 Cho (2002)의 부모와의 애착 및 갈등 척도와 Nam (2007)의 세대간 결속척도 등을 참고하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2010년 우리나라 중·고교생과 학부모의 가족의식·가정생활의 실태를 통합조사 하기 위해 개발한 세대간 결속감의 10개 문항을 이용하여 측정된 점수이다(Lee, Oh, & Kim, 2010). 부모애착 항목인 10개 문항은 부와 모의 애착 각각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나와 부모님 사이는 매우 가까운 편이다', '나의 부모님은 매사 나를 신뢰한다', '나는 부모님과 함께 있을 때가 참 좋다', '나는 부모님의 심정을 잘 이해한다', '나는 부모님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이다. 각 문항에 대해 지난 1년간 자신의 경험정도를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까지의 5단계의 Likert 척도로 응답하게 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애착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 .921$ 이었다.

#### 4) 교사애착

청소년들의 가정배경 및 가족의식·가정생활 특성이 학교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선행연구(Lee, 2006; Lee, 2009)의 조사문항을 참고하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2010년 우리나라 중·고교생과 학부모의 가족의식·가정생활의 실태를 통합조사 하기 위해 개발한 학교 생활적응의 13개 문항중 교사와의 관계 4개 문항을 이용하여 측정된 점수이다(Lee, Oh, & Kim, 2010). 교사애착 항목인 4개 문항은 '선생님을 본받고 싶다', '선생님과 이야기 하는 것이 즐겁다', '학교내외에서 선생님을 만나면 반갑다', '선생님은 아이들의 인격을 존중해준다'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에 대해 지난 1년간 자신의 경험정도를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까지의 5단계의 Likert 척도로 응답하게 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교사애착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 .902$ 였다.

#### 5) 또래애착

청소년들의 가정배경 및 가족의식·가정생활 특성이 학교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선행연구(Lee, 2006; Lee, 2009)의 조사문항을 참고하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2010년 우리나라 중·고교생과 학부모의 가족의식·가정생활의 실태를 통합조사 하기 위해 개발한 학교 생활적응의 13개 문항중 학교친구와의 관계 5개 문항을 이용하여 측정된 점수이다(Lee, Oh, & Kim, 2010). 또래애착 항목인 5개 문항은 '친구 생일에 초대받는다', '반 친구들에게 인기가 좋다', '친구들이 내 의견을 잘 따라준다', '비밀을 얘기할 친구가 있다', '준비물을 함께 쓰게 하거나 빌려준다'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에 대해 지난 1년간 자신의 경험정도를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의 5단계의 Likert 척도로 응답하게 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또래애착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 .821$ 이었다.

#### 4. 자료수집

자료수집기간은 2010년 6월 1일부터 2010년 10월 31일까지였고, 조사는 사전에 실사 관련 교육을 받은 조사원이 직접 조사대상 학급을 방문하여 조사목적, 내용, 응답요령 등을 설명한 뒤 청소년들이 직접 조사표에 응답내용을 작성하는 학급 단위의 자체식 방식으로 진행되었다(Lee, 2010; Lee, Oh, & Kim, 2010). 설문지응답에 대한 검증은 총 3차 검증을 실시하

였고, 1차는 현장에서 조사표를 회수하기 전에 무응답여부, 분기 문항 등을 확인하였고, 2차 검증은 조사표를 회수한 뒤 학급을 떠나기 전에 모든 조사표를 검토하였고, 3차 검증은 검증원들이 설문지의 연관 문항을 중심으로 에디팅을 실시, 연관 문항에서 오류가 발생할 경우 조사표를 재확인하여 처리하였다(Lee, 2010).

#### 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PASW Statistic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평균과 표준편차, 빈도 및 백분율로 분석하였다. 학교 무단결석, 애착유형, 학교폭력은 평균과 표준편차, 범위로 분석하였고,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교폭력의 차이는 두 집단으로 구성된 경우 independent t-test로 분석하였고, 세 집단 이상으로 구성된 경우 일반적 특성 범주가 등분산가정에 위배되어 Kruskal-Wallis test로, 사후 분석은 Duncan test로 분석하였다. 학교 무단결석, 애착유형, 학교폭력 간 상관관계는 Pearson's coefficient correlation으로 분석하였다. 학교 무단결석, 애착유형이 학교폭력에 미치는 영향은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로 분석하였다. 각 통계량의 유의 수준은  $p < .05$ 에서 채택하였다.

## 연구결과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총 2,968명으로, 학업성적에서 매우 못하는 수준의 학생이 165명(5.6%)이었고, 가정생활만족도는 불만족과 매우 불만족인 학생이 471명(15.9%)이었으며, 무단결석이 10회 이상인 학생이 22명(0.7%)이었다. 교사 애착정도의 평균값인 3.0 미만인 1,621명(54.6%)이었고 또래애착정도의 평균값인 3.3 이상이 1,543명(52.0%)이었으며, 부모애착의 평균값인 3.6 이상이 1,503명(50.6%)이었다(Table 1).

### 2. 학교 무단결석, 애착유형 및 학교폭력의 정도

본 연구대상자 중 학교 무단결석 경험이 있는 대상자는 326명(11.0%)이었으며, 이들 대상자의 학교 무단결석 평균값은 2.85 (범위: 2~6)이었고, 애착유형 중에서는 부모애착의 평균값이 3.65 (범위: 1~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학교폭력



**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2,968)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Grade	1st year student	954 (32.1)
	2nd year student	1,034 (34.8)
	3rd year student	980 (33.0)
Gender	Male	1,479 (49.8)
	Female	1,489 (50.2)
Total grade	Very good	194 (6.5)
	Good	645 (21.7)
	Average	1,300 (43.8)
	Bad	663 (22.3)
	Very bad	165 (5.6)
Economic state <sup>†</sup>	Very rich	111 (3.7)
	Rich	1,247 (42.0)
	Moderate	1,183 (39.9)
	Poor	368 (12.4)
	Very poor	24 (0.8)
Satisfaction of family life <sup>†</sup>	Very good	448 (15.1)
	Good	1,343 (45.2)
	Average	618 (20.8)
	Bad	415 (14.0)
	Very bad	56 (1.9)
Truancy (frequency)	None	2,642 (89.0)
	1	173 (5.8)
	2~3	88 (3.0)
	4~5	28 (0.9)
	6~9	15 (0.5)
	≥ 10	22 (0.7)
Attachment to teachers	< 3.0	1,621 (54.6)
	≥ 3.0	1,347 (45.4)
Attachment to friends	< 3.3	1,425 (48.0)
	≥ 3.3	1,543 (52.0)
Attachment to parents	< 3.6	1,462 (49.3)
	≥ 3.6	1,503 (50.6)

<sup>†</sup> Missing.

을 가해 경험이 있는 대상자는 422명(14.2%)이었고, 학교폭력 정도의 평균값은 2.97 (범위: 2~6)이었다 (Table 2).

###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교 무단결석과 비행경험의 차이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교폭력은 Table 3과 같다. 학교폭력은 중학교 3학년 학생들보다는 중학교 1, 2학년에서 학교폭력 가해 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chi^2=8.27, p=.016$ ). 성별에서는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에서 학교폭력이 높게 나타났다( $t=6.79, p<.001$ ). 학업성적에서 학교폭력은 매우 성적이 나쁜 수준의 학생들에서 높게 나타났다( $\chi^2=24.74, p<.001$ ), 가정경제수준에서는 매우 잘 사는 학생들이

**Table 2.** Means and Standard Deviations for Truancy, Types of Attachment, and School Bullying (N=2,968)

Variables	n (%)	M±SD	Range
Truancy	326 (11.0)	2.85±1.18	2~6
Attachment to teachers	2,968	3.03±0.97	1~5
Attachment to friends	2,968	3.32±0.72	1~5
Attachment to parents	2,968	3.65±0.80	1~5
School Bullying	422 (14.2)	2.97±1.27	2~6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학교폭력 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chi^2=14.93, p=.005$ ). 가정생활만족도에서는 가정생활에 만족하지 못하거나 매우 만족하지 못하는 학생들에서 학교폭력이 높게 나타났으며( $\chi^2=17.99, p=.001$ ), 학교 무단결석에서는 무단결석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에 1회이거나 무단결석을 하지 않은 학생들보다 학교폭력이 높게 나타났으며, 학교 무단결석 횟수가 많을수록 학교폭력이 높게 나타났다( $\chi^2=319.42, p<.001$ ). 교사에착은 교사에착정도의 평균값인 3.0을 기준으로 3.0 미만인 3.0 이상인 학생들에서 학교폭력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t=4.14, p<.001$ ) 부모에착은 부모에착의 평균값인 3.6을 기준으로 3.6 미만인 3.6 이상인 학생들에서 학교폭력이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2.04, p=.041$ ).

### 4. 학교 무단결석, 애착유형과 학교폭력의 상관관계

학교폭력은 학교 무단결석과 양(+)의 상관관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r=.34, p<.001$ ), 애착유형과는 음(-)의 상관관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교사에착과 부모에착은 학교폭력과 약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r=-.09, p<.001, r=-.06, p=.003$ ), 또래에착은 학교폭력과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r=.01, p=.678$ ) (Table 4).

### 5. 무단결석, 애착유형이 학교폭력에 미치는 영향

대상자의 특성 중 일변량 분석에서 차이를 보인 범주형 변수들은 더미변수 처리하여 1차 모델링을 위해 입력하였고, 애착유형을 독립변수로 2차 모델링을 위해 입력하였으며, 무단결석을 독립변수로 3차 모델링을 위해 입력한 후, 학교폭력을 종속변수로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범주형 변수

**Table 3.** Differences in School Bullying by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2,968)

Characteristics	Categories	School bullying		
		M±SD	$\chi^2$ or t	p
Grade	1st year student <sup>a</sup>	1,29±0,82	8,27 <sup>†</sup>	,016 (a > b)
	2nd year student <sup>a</sup>	1,32±0,93		
	3rd year student <sup>b</sup>	1,22±0,75		
Gender	Male	1,38±0,97	6,79	< ,001
	Female	1,18±0,67		
Total grade	Very good <sup>a</sup>	1,34±1,02	24,74 <sup>†</sup>	< ,001 (a < b)
	Good <sup>a</sup>	1,21±0,73		
	Average <sup>a</sup>	1,25±0,79		
	Bad <sup>a</sup>	1,33±0,88		
	Very bad <sup>b</sup>	1,53±1,13		
Economic state	Very rich <sup>a</sup>	1,57±1,29	14,93 <sup>†</sup>	,005 (a > b)
	Rich <sup>b</sup>	1,28±0,81		
	Moderate <sup>b</sup>	1,22±0,74		
	Poor <sup>b</sup>	1,32±0,92		
	Very poor <sup>b</sup>	1,38±0,92		
Satisfaction of family life	Very good <sup>a</sup>	1,23±0,83	17,99 <sup>†</sup>	,001 (a < b)
	Good <sup>a</sup>	1,23±0,72		
	Average <sup>a</sup>	1,28±0,83		
	Bad <sup>b</sup>	1,41±1,03		
	Very bad <sup>b</sup>	1,38±0,95		
Truancy (frequency)	None <sup>a</sup>	1,20±0,71	319,42 <sup>†</sup>	< ,001 (a < b < c < d)
	1 <sup>a</sup>	1,49±0,97		
	2~3 <sup>b</sup>	2,06±1,23		
	4~5 <sup>c</sup>	2,71±1,84		
	6~9 <sup>c</sup>	2,73±1,79		
	≥10 <sup>d</sup>	3,18±1,89		
Attachment to teachers	< 3.0	1,17±0,37	4,14	< ,001
	≥ 3.0	1,11±0,32		
Attachment to friends	< 3.3	1,14±0,35	-0,06	,949
	≥ 3.3	1,14±0,40		
Attachment to parents	< 3.6	1,16±0,36	2,04	,041
	≥ 3.6	1,13±0,34		

<sup>†</sup> Kruskal-Wallis test; Post-Hoc: Duncan test.

**Table 4.** Correlations of Truancy, Types of Attachment, and School Bullying

(N=2,968)

Variables	Truancy	Attachment to teachers	Attachment to friends	Attachment to parents	School bullying
	r (p)	r (p)	r (p)	r (p)	r (p)
Truancy	1				
Attachment to teachers	-.09 (< ,001)	1			
Attachment to friends	-.06 (.002)	.35 (< ,001)	1		
Attachment to parents	-.09 (< ,001)	.32 (< ,001)	.29 (< ,001)	1	
School bullying	.34 (< ,001)	-.09 (< ,001)	.01 (.678)	-.06 (.003)	1

들과 무단결석, 교사에착, 또래에착, 부모에착이 학교폭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모형은 유의하였고( $F=27.84, p < .001$ ), 구축된 회귀모형에서 무단결석이 학교폭력의 변량을 10.4% 설명함으로써 무단결석이 학교폭력의 유의한 예측요인으로 나타났다 (Table 5).

## 논 의

본 연구는 중학생들의 애착유형과 학교무단결석이 학교폭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연구를 통해 얻은 주요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학교폭력의 정도는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가해경험이 높고, 학업성적이 낮고 생활만족도가 낮은 학생들이 가해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학교 3학년보다는 중학교 1, 2학년에서 더 많이 가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정경제수준이 매우 잘사는 학생들의 가해경험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적응 측면에서 학교성적이 학교폭력의 유발요인이라 제시하는 선행연구들(Lee, 2009; Kim, 2007; Kim, 2001)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Kim (2001)의 연구결과와 같이 학교에서의 학업부진은 학교생활에 대한 스트레스와 낮은 자존감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심리적 긴장감이 상승되어 신체적 가해행동의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성별에 따른 학교폭력의 차이는 여학생은 관계적 폭력을 남학생은 신체적 폭력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Kim & Jo, 2010). 이는 본 연구에서 남학생들의 신체적 폭력 경험이 여학생보다 높은 결과와 유사하다. 연령적 측면에서 시춘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중학교 1, 2학년은 학교폭력의 생물학적 위험요인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Table 5.** Influencing Factors on School Bullying

(N=2,968)

Variables	Categories	Model 1			Model 2			Model 3		
		B	t	p	B	t	p	B	t	p
(Constant)		1.90	14.30	<.001	1.91	12.16	<.001	1.06	6.82	<.001
Grade (ref=1st year)	2nd year	0.06	1.60	.110	0.05	1.30	.195	0.01	0.13	.894
	3rd year	-0.03	-0.67	.503	-0.05	-1.27	.204	-0.08	-2.17	.030
Gender (ref=Male)	Female	-0.21	-6.79	<.001	-0.23	-7.39	<.001	-0.24	-8.18	<.001
Total grade (ref=Very bad)	Bad	-0.11	-1.53	.125	-0.12	-1.71	.088	<.001	0.004	.997
	Average	-0.17	-2.65	.008	-0.18	-2.78	.005	-0.003	-0.04	.966
	Good	-0.21	-2.93	.003	-0.21	-3.00	.003	-0.007	-0.11	.914
	Very good	-0.12	-1.38	.166	-0.12	-1.42	.156	0.06	0.67	.506
Economic state (ref=Very poor)	Poor	-0.23	-1.98	.048	-0.21	-1.77	.077	-0.15	-1.34	.181
	Moderate	-0.27	-2.43	.015	-0.26	-2.38	.017	-0.18	-1.75	.080
	Rich	-0.19	-1.69	.091	-0.19	-1.75	.080	-0.15	-1.40	.162
Very rich		0.05	0.39	.701	0.03	0.25	.800	0.07	0.51	.609
Satisfaction of family life (ref=Very bad)	Bad	-0.01	-0.12	.909	-0.03	-0.31	.756	0.09	1.20	.230
	Average	-0.14	-1.86	.064	-0.14	-1.77	.077	-0.03	-0.47	.638
	Good	-0.21	-2.83	.005	-0.19	-2.56	.010	-0.06	-0.82	.415
	Very good	-0.24	-2.99	.003	-0.21	-2.47	.014	-0.08	-0.98	.327
Attachment to teachers				-0.08	-4.80	<.001	-0.07	-4.33	<.001	
Attachment to friends				0.09	3.89	<.001	0.09	4.03	<.001	
Attachment to parents				-0.01	-0.56	.577	-0.00	-0.16	.872	
Truancy							0.40	18.97	<.001	
F (p)		7.92 (<.001)			8.39 (<.001)			27.84 (<.001)		
Adj. R <sup>2</sup>		.03			.04			.14.7		
Adj. R <sup>2</sup> change		.04			.01			.10		
Durbin-Watson		1.95			1.95			1.95		

Kim과 Rim (2010)은 학교폭력 가해 청소년의 공격적인 신체적이고 언어적인 행동은 전두엽의 실행기능이 부족하여 나타나는 현상중의 하나로 설명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사춘기의 절정기인 중학교 1, 2학년 학생의 미성숙한 전두엽의 발달은 사춘기의 정서적 안정기로 들어가는 3학년에 비해 사고와 행동을 통제하는 능력이 부족하여 충동성과 공격성으로 표출되기 쉬운 것으로 여겨진다.

가정경제수준의 경우 본 연구에서는 매우 잘 산다고 보고한 학생의 학교폭력 가해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가정의 낮은 경제수준이 자녀들에게 필요한 적절한 지지적 환경을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폭력과 같은 비행에 관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한 선행연구들(Catalano & Hawkins, 1996; Kim, 2012)과는 다른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선행연구와의 차이는 자녀의 정서적 지원의 결핍과 같은 일상생활에서의 긴장과 스트레스 측면에서 추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Um (2000)의 연구에 의하면 부모의 경제적 부유가 자녀의 정서적 충족 보다는 물질적인 충족만을 채우게 됨으로서 일상생활에서 긴장과 스트레스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 신체적 폭력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한 바가 있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추론해 볼 때, 매우 부유한 가정에서 부모는 사회적 지위 유지를 위한 시간투자로 인하여 자녀와의 충분한 의사소통이 어려워지고 이로 인한 자녀의 정서적 욕구 충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일상생활에서의 긴장과 스트레스를 표출하는 방법으로 신체적 폭력을 선택했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추론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는 매우 잘 산다고 보고한 학생의 가정에서 자녀를 위한 정서적 지원, 자녀에 대한 감독, 자녀양육방식(개방적인 의사소통) 등의 가정의 기능이 적절히 작동하고 있는지 여부가 함께 확인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애착유형에 따른 가해경험의 차이는 부모애착과 선생님에 대한 애착의 수준이 낮은 학생이 가해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래애착의 경우 가해경험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 발생의 영향 요인 중 애착은 학교폭력의 가해와 피해경험에 중요한 변인으로 간주된다. 가정과 학교의 주요 영향 요인이 되는 부모애착과 교사애착은 학교폭력을 예측할 수 있는 요인이다. Park (2009)과 Kim (2005)의 연구는 부모애착 수준이 낮을수록 청소년비행과 학교폭력 가해경험이 높다고 보고하였으며, 이는 애착수준이 높은 학생들의 경우 환경적인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심리적 안정감을 갖고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Kim, Cho, & Choe, 2010). 특히, 청소년이 되면서 더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는 중학생의 경우 학교교사와의 친밀

감은 학교와의 긍정적인 유대를 형성하여 학교에 대한 만족과 심리적 결속을 갖게 하여 학교폭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Choi & Cho, 2013). 선행연구에서 또래애착의 영향은 학교폭력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 모두가 보고되고 있다. Shin (2005)의 연구에서는 또래애착은 학교폭력 가해경험을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요인으로 보고하였는데, 이는 청소년기로 들어서면서 또래애착이 높을수록 대상인 친구의 특성(비행청소년 vs. 일반청소년)에 따라서 학교폭력이 높아질 수도 또는 낮아질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반면에 본 연구 결과는 또래애착 수준에 따라 학교폭력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학교폭력에 대한 또래애착의 보호효과를 살펴본 Choi (2012)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Choi (2012)의 연구에서 낮은 부모애착수준이 학교폭력에 대한 영향요인이며, 부모애착수준이 낮더라도 또래애착이 학교폭력 경험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 보았으나, 또래애착은 학교폭력 경험에 어떠한 영향력도 주지 못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또래애착 수준에 따라 학교폭력이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은 발달시기상 청소년기 초기에 해당하는 중학생에게 또래친구란 가족 간의 친분이나 부모의 선호도에 의해 선택된 친구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Choi, 1995) 중학생의 친구관계에 있어 부모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한다. 따라서 중학생은 또래관계가 중요해지는 시점이나, 청소년기 초기에 해당하는 중학생에게는 여전히 부모애착이 또래보다 우선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요인임을 추론해 볼 수 있으며,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개입에 있어서 친밀감과 신뢰감을 기반으로 하는 부모-자녀 관계형성이 필수적임을 시사한다.

셋째, 무단결석과 애착유형이 가해경험에 미치는 영향은 중학생의 가해경험의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부모와 선생님에 대한 애착 수준이 낮을수록 가해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래애착의 영향요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교폭력 모형에서 무단결석은 매우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모형에서 학생의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애착유형은 4.3%의 설명력을 가졌으나, 무단결석의 요인은 전체모형의 설명력을 10.4%로 증가시켰다. 청소년 비행 경험에 무단결석이 미치는 영향력은 선행연구를 통해 알려진 바이다(Cho & Kim, 2013). 학교 무단결석의 경험과 만성적인 무단결석의 반복은 학교에 대한 관심을 낮추고 학교에 대한 애착과 소속감을 떨어뜨려 결국 약물사용, 학교폭력, 범죄행동과 같은 비행활동의 참여를 높인다고 보고하는 선행연구들과 맥락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학교 무단결석의 영향력은 청소년비행 유발의 주요 위협요인 받아들여진 것뿐



만 아니라 단순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다(Lindstadadt, 2005). 이에 미국과 영국의 경우는 청소년 비행의 예방적 차원에서 무단결석 프로그램 개발과 학교 시스템 내에 적용 및 확산을 독려하고 있다(National Criminal Justice Reference Service, 2007; Baker, Sigmon, & Nugent, 2001).

##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중학생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학교폭력 가해경험과 애착유형과 학교 무단결석이 학교폭력 가해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2010년 한국 아동·청소년 통합조사 데이터를 이용하였고,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2,968명의 자료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일반적인 특성에 다른 학교폭력 가해경험은 성별, 가정경제수준, 학년, 학업성적, 생활만족도에 따라 차이가 났다. 남학생, 중학교 1, 2학년, 학업성적과 생활만족도가 낮고, 가정경제수준이 매우 높은 경우 학교폭력 가해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애착의 경우 부모와 선생님에 대한 애착이 낮고, 무단결석의 빈도가 높은 학생일수록 가해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무단결석은 학교폭력 가해경험 모형의 설명력을 4.3%에서 14.7%로 증가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먼저, 본 연구는 한국 중학생을 대표할 수 있는 대규모 표본을 사용했다는 장점이 있으나, 2차 자료의 사용과 패널 조사에서 사용한 측정도구를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측정도구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또한 패널의 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기 때문에 전체 청소년으로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추후에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확대하여 무단결석의 영향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부모, 교사, 또래애착의 영향력보다도 학교 무단결석이 학교폭력 가해경험의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학생의 학교폭력 가해행동을 예방하기 위한 개입으로 부모와 교사와의 관계 개선을 위한 교육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교폭력 가해행동의 중요한 예측변인인 학교 무단결석을 조기에 예방하거나 개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해준다.

## REFERENCES

- Audit Commission. (1990). *Children in mind*. London: Audit: Commission.
- Baker, M. L., Nady Sigmon, J., & Nugent, M. E. (2001). *Truancy reduction: Keeping students in school*.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Justice.
- Bengtson, V. L., Cutler, N. E., Mangen, D. J., & Marshall, V. W. (1985). Generations, cohorts, and relations between age groups. In R. H. Binstock & E. Shanas (eds.), *Handbook of aging and the social sciences* (2nd ed). NY: VNR.
- Bowen, G. L., & Chapman, J. M. (1996). Poverty, neighborhood danger, social support, and the individual adaptation among at-risk youth in urban areas. *The Journal of Family Issues*, 17(5), 641-666.
- Catalano, R. F., & Hawkins, J. D. (1996). The social development model: A theory of antisocial behavior. In J. D. Hawkins (Ed.), *Delinquency and Crime Current Theories* (pp.149-197).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hang, H. N., & Romero, M. (2008). *Present, engaged, and accounted for: The critical importance of addressing chronic absence in the early grades*. National Center for Children in Poverty Mailman. School of Public Health at Columbia University, New York, NY.
- Choi, J. Y. (2012). *The effect of the parent attachment in adolescence on experiencing both victimization and aggression of violence: The protective effect of peer attach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Sungkyunkwan University, Seoul.
- Cho, M. K., & Kim, H. Y. (2013). The relationship between truancy and adolescent delinquency.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0(6), 103-125.
- Cho, Y. J. (2002). *College students's attitude to parent caregiving*.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 Choi, S., & Cho, Y. I. (2013). Influence of psychological and social factors on bystanders' roles in school bullying among Korean-American students in the United States. *School Psychology, International*, 34(1), 37-81.
- Choi, S. N. (1995). *Human behavior theories and social work practice*. Gyeonggi-do: Hanshin University Publisher.
- Colorado Foundation for Families and Children. (2007). *National center for school engagements: truancy toolkit*. Retrieved June 8, 2014, from <http://www.ncjrs.gov/pdffiles1/pr/217271.pdf>
- Department for Education and Skills. (2004). *Five year strategy for children and learners*. London: DfES.
- Do, G. B. (2007). *A study of factors influencing school violence behavior*.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Daegu University, Gyeongsan.
- Henry, K. L., & Huizinga, D. H. (2007). School-related risk and protective factors associated with truancy among urban

- youth placed at risk. *Journal of Primary Prevent*, 28, 202-519.
- Hwang, J. A. (2010). *A Study of Factors Influencing on School Violence: Focusing on Middle School Students at Icheon-si and Yeosu-gun*. Unpublished master's thesis, Dongguk University, Seoul.
- Kagan, J., & Gall, S. (eds.)(1998). *Gale Encyclopedia of Childhood and Adolescence*. New York: Gale Research.
- Kim, C. K., & Rim, K. R. (2010). Causes of school violence and solutions. *Law Study*, 38, 173-198.
- Kim, J. C., Cho, H. B., & Choe, W. H. (2010).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attachment, the victimization experience of school violence, anger and the experience of bully. *The Journal of Yeollin Education*, 18(1), 185-209.
- Kim, J. Y., & Jo, H. B. (2010). Gender-specific theory through empirical testing of factors of girls' delinquency based on feministic perspectives. *The Korea Contents Society*, 10(1), 275-285.
- Kim, M. J. (2001). Factors influencing on school violence in middle school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Academic Society*, 10(2), 241-253.
- Kim, S. A. (2005). The effect of stress and attachment on offending and victimization experience among adolescents: A focus on dual experience group and general experience group.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16(2), 5-36.
- Kim, S. A. (2007). A study on the relationships among family, school, peers-related variables, and school violence.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4(1), 101-126.
- Kim, T. G. (2012). A study on the effect of school life adjustment on the bullying experience of school violenc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Private Security*, 11(4), 50-73.
- Kim, Y. H., & An, S. M. (2008). A study on the family cohesion and adaptability, parent-child communication, family conflict, adolescent depression and delinquency.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5(2), 1-31.
- Korea Youth Violence Prevention Foundation. (2012). 2012 National survey report on school violence in Korea. Seoul: Author.
- Lee, E. M. (2000). *Study on main factors of juvenile violence in school*. Unpublished master's thesis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Seoul.
- Lee, G. S. (2006). *The effects of stress on elementary school children from extracurricular activiti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Daegu University, Daegu.
- Lee, J. W. (2010). *Korean survey on the familial consciousness of youth and parents in 2010 (NYPI Youth Report III-2010)*. Seoul: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 Lee, J. W., Oh, S. K., & Kim, E. J. (2010). *A study on family rituals and family life in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and their parents (NYPI Youth Report 24)*. Seoul: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 Lee, M. J. (2009). *The relationship between elementary school children's academic stress, ego-resilience, social support and their adapta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Daegu University, Gyeongsan.
- Lindstadadt, M. A. (2005). Employing mediation to approach truants. *Family Court Review*, 43(2), 303-322.
- Loeber, R., & Farrington, D. P. (1998). *Serious and violent juvenile offenders: Risk factors and successful interventions*. Thousand Oaks, CA: Sage.
- Ministry of Education. (2009). *Educational Statistics*. Retrieved May 3, 2010, from <http://kess.chedi.re.kr/index>
- Nam, J. S. (2007). *A study on the differences of attitude toward supporting adolescent's parents between generations & variables on their decision to support par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seo University, Seosan.
- Olweus, D. (2003). A Profile of Bullying at School. *Educational leadership*, 60(6), 12-17.
- Park, J. K. (2009). *A study on the influence of juvenile delinquency to parents and friends affection for children in Korea*.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nam University, Daejeon.
- Sampson, R. (2004). *The Problem of Bullying in Schools*.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Justice.
- Shin, H. K. (2006). A Study on the continual development of aggressive victims, passive victims, and bullies. *Studies on Korean Youth*, 17(1), 297-323.
- Shin, H. S. (2005). The effect of individual, family, and peer and school variables on the middle school students' peer violence type.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2(4), 123-149.
- Shin, H. S. (2005). The influence of family structure variables and family violence variables on hidden delinquency committed by students. *Family and Culture*, 17(2), 63-88.
- Um, M. Y. (2000). Identifying the predictor variables of juvenile delinquency for the development of prevention programs.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42(8), 254-289.
- Ministry of Education. (2012). The survey study of character education. Retrieved June 8, 2014 from <http://m.mest.go.kr/web/100026/ko/board/view.do?bbsId=294&pageSize=10&currentPage=121&encodeYn=Y&boardSeq=32716&mode=view>
-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2014). *School bullying* Retrieved August 2, 2014, from <http://www.law.go.kr/1Lsc.do?menuId=0&p1=&subMenu=1&nwYn=1&query=%ED%95%99%EA%B5%90%ED%8F%AD%EB%A0%A5%EC%98%88%EB%B0%A9+%EB%B0%8F+%EB%8C%80%EC%B1%85%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x=32&y=8#liBgcolor0>
- Yang, J. D., & Park, Y. K. (2009). Impact of Family and Peer Support on Self-Efficacy and Juvenile Delinquency.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14(4), 211-235.